WORLDVIEW COLUMN

민주시민교육과 교회의 역할

백승현

다원주의와 인본적인 가치관 속에서

오랜 역사 속에서 한국의 정치사회 질서를 유지시켜 온 전통적인 도덕적 가치는 유교와 불교에 기초했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배로 인한 기성 권위의 해체, 해방과 6 · 25전쟁 이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물결의 도래, 근대화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전통적 가치관은 그 영향력과 명맥을 상실하였고, 한국인의 의식세계는 공백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 공백을 메울 새로운 가치관으로 등장한 것이 120여 년 전 이 땅에 처음 소개된 기독교이다. 일제 식민지배 하에서 소망 속에 견뎌낼 수 있는 영적 토대를 마련해주고, 권위주의 정권들의 억압 속에서 굴하지 않고 항거할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기독교였다. 그런 연유로 20세기 후반 한국사회에서 기독교인의 증가와 기독교회의 성장은 놀라울 정도였다.

그러나 기독교 선교 100년 무렵인 1990년대부터 서구에서 불기 시작한 탈현대,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세파가 이 땅에 불어 닥치면서 기독교 선교환경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기독교의 위축과 성장세 둔화에는 물론 이런 외적 요인 외에 대형교회 목사들의 부자세습, 배금주의, 주도권 관련 분란과 싸움, 성적 타락과 같은 교회내적 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더 큰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여하튼 서양사상과 문화에서 탈현대(탈근대)와 포스트모더니즘 경향은 18세기 중반부터 서구 사회의 주된 흐름으로 자리잡아온 계몽주의 사조에서 배태된 '현대'에 대해, 그리고 그 철학적 토대인 자유주의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며 등장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이 계몽주의에서 비롯된 현대와 자유주의를 비판하지만, 그럼에도 포스트모더니즘과 계몽주의는 동일 모태에서 잉태되었다. 그들 양자는 모두 근본적으로 인간성을 우주의 중심으로 삼고 자율적 인간성을 윤리의 근간으로 삼는 인본적 가치관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양자는 그 어떤 것도 보편적으로 옳은 것이 없고, 또 그릇된 것도 없다고 하는 상대주의적 관점에 근거하고 있는 점에서 서로 공통점이 있다.

서양인들이 이런 상대주의적 관점과 인본적 관점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면, 특히 정치적인 문제들과 관련된 영역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다운 정치적 삶인가 하는 데 대해 교회지도자들은 교인들에게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의 요소를 불교 등의 동양사상전통에서 찾으려 한 이후 불교에 귀의하는 서양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과, 특히 국내에서 최근 들어 불교의 입지와 영향력이 커진 것은 서로 무관치 않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가치가 허용되거나 존중되어 소수의 입장과 가치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발전된 민주사회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다원주의적 한국 정치사회의 모습인데, 한국사회가 다원주의 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것도 이같은 시대적 흐름과 무관치 않다. 이런 급격하고 다변적인 시대상황의 변화추세 속에서 기독교인은 신앙의 기본관점을 훼손하거나 왜곡하지 않으면서, 정치사회의 다원적 요소들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차원에서 또는 개인차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한 교회나 개인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기독교신앙에 입각한 민주시민교육 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코 간단명료하거나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가장 근원적이면서 일반론적인 답은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근대, 근대, 탈근대가 혼재해 있는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복잡하고 다변적인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기독교가 국민화합과 국가안정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바른 시민의식, 정치의식을 가진 신앙인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교회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시민교육이 실시돼야 한다. 고대 정치철학자인 플라톤은 국가는 인간을 대문자화한 것이라고 하였다. 즉 국가가 건강한지 병들어 있는지 여부는 그 국가를 구성하거나 주도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건강한지 병들어있는지 여부와 직결된다고 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선 교회와 국가의 분리 원칙이 개인적 삶의 차원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여, 신앙과 정치문제는 서로 별개의 독립적인 것으로, 교회에서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설교나 교육을 실시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금기시하거나 꺼리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 그렇지만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의식주의 삶과 함께 경제적 삶을 영위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 민주사회의 구성원인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기독교인은 또한 정치적 차원의 삶을 영위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적 삶의 차원에서 볼 때, 정치와 종교는 전혀 분리된 문제가 아니다. 한 개인의 삶은 모든 영역과 차원의 삶이 총체적으로 이뤄지는 하나의 생활장이다. 바꿔 말하면, 한 사람의 생활이 교회와 사회에서 각기 다를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즉 주일에 교회에서 경건하게 지내다 주중엔 비신앙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이른 바 '신앙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면, 특히 정치적인 문제들과 관련된 영역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다운 정치적 삶인가 하는 데 대해 교회지도자들은 교인들에게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아니, 답을 제시해주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각자 부딪치는 상황과 환경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어떤 지침이나 길잡이를 그들에게 교육 단련시켜야 한다. 그런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바로 이 시대의 난맥상을 치유하는데 교회와 신앙인이 하나의 희망이자 길잡이로서 역할하고 기능할 수 있는 길이다.

상대주의 윤리관의 덫에 빠져있는 현대와 탈현대 사회에서 이제 영적으로 부패 타락하고 정신적으로 무질서해진 이 사회의 병든 상태를 치유하고, 도덕 윤리를 다시 세워 떠받쳐 나가야 할 책임, 의무, 희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입각한 기독교 정신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 막중한 보루의 역할을 한국교회가 감당하기 위해 교회지도자들은 교인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의 가르침을 그대로 자신의 삶속에서 실천하고 구현하는 것에 더하여, 사회의 다른 요소들과도 더불어 살면서 복음의 삶을 증거해 보일 수 있는 더욱 강건한 기독 민주시민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계발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는 정치 사회적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예배와 교육, 선교활동 등을 통해 '교회생활에 충실한 기독교인'을 길러내는데 열심을 다해 왔다. 그 결과 기독교인 수의 비약적인 증가를 통해 교회성장 면에서 유례없는 큰 성과를 거뒀다. 이제 여러 번의 기독교인 대통령을 배출하고, 전체 국민 중 기독교인 수가 1/4에 이르는데다가, 정치사회적으로도 교육 문화 및 생활수준 등에서 기독교인들의 사회적 비중과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그런 만큼, 교회와 교인의 이익과 영역을 더 확보하려는데 관심을 두기보다 정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하게 갖고, 한국사회의 더욱 성숙한 발전을 위해 선도적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는 초-중-고교 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도 기본적인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길러주기 위한 민주시민 교양교육이 전무한 형편이다. 그러므로 이제 무엇보다도 교회지도자들이 교인들을 단지 신앙인으로 길러내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일 게 아니라, '기독 민주시민'으로서 정치 사회 경제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기독교인답게 사는 것인지, 상대주의적 가치관의 정글과 다원주의 사회의 저변 속에서 어떻게 다른 관점을 소유한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배워 익히게 하고 가르치는 '기독 민주시민 교양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백승현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BA),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MA), 루이지애나주립대학교(Ph.D.)에서 수학하였다. 새문안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고,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학교법인 삼괴학원 (삼괴중고교, 장안여중)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본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정치분과장으로 봉사하고 있다.